

## — S-65 —

###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에 의한 급성 간부전 초기 환자에서 MARS의 임상경험 2예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소화기연구소

윤효중 · 김상균 · 나현식 · 맹주희 · 배원기 · 한상훈 · 고봉민 · 홍수진 · 유창범 · 장재영 · 김영석 · 문종호 · 이문성 · 심찬섭 · 김부성

**배경 :**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에 의한 급성 간부전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응급 간이식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이다. 간부전은 간성혼수와 혈액응고장애를 특징으로 하며, 약제에 의한 간부전은 일단 회복되면 후유증 없이 완치될 수 있다. MARS (Molecular Adsorbents Recirculating System)는 알부민이 포함되어 있는 투석액을 이용하여 혈중 알부민에 결합된 독성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간 보조 장치이다. 저자들은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에 의한 간부전 초기에 MARS 치료 후 호전된 2 예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증례1. 39세 여자 환자가 아세트아미노펜 20 gram 복용 18시간 후 내원하였다. 내원시 바이러스 간염 표지자는 모두 음성이었으며 AST 652 IU/L, ALT 444 IU/L, total bilirubin 2.48 mg/dL, PT 12.9 sec (72%, INR 1.17) 이었다. 보존적 치료 하였으나 입원 3일째 grade I의 간성뇌증이 발생되었고, AST 8452 IU/L, ALT 6047 IU/L, total bilirubin 5.01 mg/dL, PT 35.3 sec (15%, INR=3.21)로 악화되어 급성 간부전으로 진단하였다. 하루에 3시간 30분씩 연속 3일간 MARS 치료 후 간성뇌증은 소실되었고 AST 180 IU/L, ALT 2171 IU/L, total bilirubin 2.01 mg/dL, PT 15.2 sec(53%, INR=1.38)로 호전되었다. 환자는 MARS 치료 25일 후 검사실 소견 모두 정상화 되었다. 증례2. 45세 여자 환자가 아세트아미노펜 15 gram 복용 23시간 후 내원하였다. 내원시 바이러스 간염 표지자는 모두 음성이었으며 AST 8713 IU/L, ALT 5793 IU/L, total bilirubin 1.74 mg/dL, PT 26.5 sec(23%, INR=2.41)이었다. 입원 2일째 grade I의 간성뇌증이 발생되어, 급성 간부전으로 진단하였다. MARS 치료 후 간성뇌증은 소실되었고 AST 3140 IU/L, ALT 3847 IU/L, total bilirubin 1.7 mg/dL, PT 18.2 sec(41%, INR=1.65)로 호전되었다. 환자는 MARS 치료 21일 후 검사실 소견 모두 정상화 되었다. **결론 :**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급성 간부전 시 사망률은 27%이고, 간이식은 8%에서 시행된다. 이러한 간부전 초기에 MARS 치료를 통해 간이식 전까지의 병의 악화를 예방하고 병의 경과를 호전시킬 수 있다.

## — S-66 —

### 한약 복용 후 발생한 간소정맥 폐쇄질환 1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오유경 · 정대영 · 김진일 · 조세현 · 윤승규 · 박수현 · 한준열 · 한남익 · 김재광 · 이영석

**서론 :** 간소정맥 폐쇄질환은 간소정맥 내피세포의 손상으로 인한 혈관내강의 협착에 의한 것으로 황달, 복부팽만, 복수 등을 주증상으로 보이는 드문 질환이다. 간소정맥 폐쇄질환은 처음 senecio bush tea를 마신 자마이카인에서 처음 보고 되었고 최근에는 이식후에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한약 복용 후 발생한 간소정맥 폐쇄질환은 국외에는 pyrrolizidine alkaloid 등에 의한 보고가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보고된 예가 없었다. 저자들은 체중 감량을 위해 한약을 복용한 후 발생한 간소정맥 1예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15세 여자환자가 5일간의 우상복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7일전 체중감량을 위해 한약을 복용한 과거력이 있었고, 우상복부에서 간이 두 횡지 너비로 촉진되었으며 압통이 있었다. 입원 당시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 혈색소 11.5g/dL, 헤마토크릿 33.8%, 백혈구 14.1×10<sup>9</sup>/L, 혈소판 188×10<sup>9</sup>/L이었고, 화학검사서 포도당 95mg/dL, AST 154IU/L, ALT 522IU/L, 총단백질 6.59g/dL, 알부민 3.68g/dL, 총빌리루빈 0.96mg/dL, ALP 204IU/L, GGT 122IU/L이었다. B형 간염항원과 항체, C형 간염항체가 음성 이었고, Epstein-Barr virus, Cytomegalovirus, Human Parvovirus 혈청 검사는 모두 음성이었다. 항핵항체와 항미토콘드리아항체는 음성이었고, 흉부 X-선 검사에서 폐효수가 보였으며 간초음파에서 간비장비대와 복수가 보였다. 간 조직생검에서 중심정맥의 폐쇄와 출혈이 보였고, 문맥 염증과 문맥 섬유증이 보여 간소정맥 폐쇄질환을 진단하였다. 환자는 보존적 치료 후 증상과 검사 소견이 호전되었다. **결론 :** 본 증례는 체중 감량을 위해 한약을 복용한 후 간염으로 치료 중 간 조직생검으로 간소정맥 폐쇄질환을 진단한 증례이다. 국내에는 아직 한약 복용후 간소정맥 폐쇄질환이 발생한 보고는 없어 1예를 보고하고자 한다.